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금숙¹ · 김혁준² · 김신희³

¹ 원광보건대학교, 부교수 · ² 원광보건대학교, 시간강사 · ³ 원광보건대학교, 조교수

Factors Influencing Nursing Cor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Keum Sook, Park¹ · Hyuk Joon, Kim² · Shin Hee, Kim³

¹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²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Lecture

³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ability, caring character, and cultural competence on the nursing student's core competency. **Methods :**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61 fourth year students at a nursing university in I City.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October 10th to the 30th of October, 2021.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26.0 program. **Results :** The mean scores for communication ability, caring character, cultural competence, and nursing core competency were 3.82, 4.33, 3.95 and 4.32, respectively.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communication ability, caring character, cultural competence and nursing core competency. The factors affecting nursing core competency were caring character($\beta = .62, p < .001$), cultural competence($\beta = .17, p = .003$), and communication ability($\beta = .14, p = .009$) with 56.7% of the variance explained by these variables. **Conclusions :** Students must improve their nursing core competency through education programs while at universit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caring character and cultural competence through curriculum development at nursing school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haracter, Cultural competenc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성을 가지고 실무상황에서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 따라서 간호교육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공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추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역량이란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지적, 실천적 기술을 활용하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2]. 그리고 간호역량은 지식과 실무를 통합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숙련된 술기, 돌봄, 의사소통능력, 전문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을 의미하며, 핵심간호역량은 모든 간호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을 의미한다[3]. 한편 간호사의 잘 준비된 핵심간호역량은 간호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 병원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직결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한편으로 병원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핵심간호역량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4]. 이러한 간호사의 핵심간호역량은 대부분 간호대학생 시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성취된다.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통해 간호교육 프로그램에서 졸업 시 요구되는 핵심간호역량 수준과 연계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5].

이와 같이 간호업무성과와 직결되는 핵심간호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핵심간호역량의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간호교육평가원[5]에서는 교양 및 전공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적 적용능력, 전문분야 간 의사소통과 협력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법적·윤리적 책임인식 능력, 리더십 능력, 연구수행능력, 글로벌 보건의료 정책변화 대응능력을 간호사의 핵심능력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

간호대학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에서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및 응용, 전문성과 전문가치역량을 포함하고 있다[6]. 또한 Seomun[7]는 498명의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지식과 간호술의 통합,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리더십, 안전관리, 국제화역량을 도출하였고, Utley-Smith[8]는 건강증진, 감독,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직접간호, 컴퓨터사용, 사례관리 역량을, Berkow 등[9]은 임상지식, 기술,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전문직관, 책임감을 신규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핵심간호역량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외에서 제시한 핵심간호역량의 공통된 요소는 의사소통 능력이었는데, 이는 간호사가 다양한 요구를 가진 환자를 돌보거나 다른 보건의료인들과의 협력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직무수행능력이나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10]. 의사소통 능력은 대화시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의도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0]. Bang[11]은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도출한 핵심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계 관계 맺기나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였다. 의료팀과의 부정확한 의사소통은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환자안전과 팀워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환자돌봄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므로 핵심간호역량의 주요 구성요소가 된다[12]. 이렇듯 임상현장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병원조직 내의 다양한 부서직원과의 상호작용, 환자나 보호자와의 소통, 인수인계를 통한 대상자 중심의 정보교환 등 간호사들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므로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 중 하나이다.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을 통해 효과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은 간호사의 인성이다. 인성(character)이란 인간다운 성품으로 개인의 내면화된 가치관을 일관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7], 간호에서의 인성은 공감, 정직, 성실, 윤리 등 내부적 품성이 대상자 간호에 있어 간호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13]. 인성은 대

상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간호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간호사의 잘 형성된 돌봄인성은 간호서비스의 질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의 수립, 직무만족 및 이직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돌봄을 위한 인성은 간호사가 되었다고 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형성되며[14], 간호대학생의 인성이 곧 간호사의 인성으로 직결되므로 간호대학생 시기에 바람직한 인성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의료법 개정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외국인으로 확대되고, 국내 지역사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문화적 역량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되고 있다[15]. 문화적 역량이란 타 언어와 문화를 가진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으로, 다문화 상황에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일관된 행동, 태도 등을 의미하며, 간호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15].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이질성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한 간호제공은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개별화된 간호수행으로 최적의 전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16]. 이에 따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국제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능력을 간호대학생이 갖춰야 할 핵심역량 중 하나로 강조하며, 간호대학생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5].

핵심간호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간호역량을 정의[3,4,7]하고, 핵심간호역량의 요소를 규명[4,7-9,11]하며, 평가를 위한 도구개발[1,2,17]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임상경력, 현 병동 근무기간, 최종학력, 직위 등을 확인하였으나[4]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역량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 의사소통 능력과 간호사의 인성이 돌봄의 태도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문화적 역량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모든 역량이 간호사의 핵심간호역량으로 귀결된다는 가정하에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이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실무현장에서 신규간호사로서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간호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간호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 핵심간호역량의 정도를 확인하고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 핵심간호역량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역량, 핵심간호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 핵심간호역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I시 소재 W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61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은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한 4학년 학생이며, 제외 기준은 중도에 참여를 철회하였거나 휴학한 학생이다. 표본크기의 산정은 G*power 3.1.9.6을 이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선행연구[22]를 근거로 회귀분석을 위해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독립변수 8개를 기준으로 산정된 최소 표본 수는 136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4학년 전체 학생 중 연구참여에 서면 동意的한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응답한 설문지 중 탈락이 없어 16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Hur[18]가 개발한 포괄적인 대인 의사소통 능력(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을 Lee와 Kim[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 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력,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72$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였다.

2) 돌봄인성

돌봄인성은 Kim[20]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돌봄인성 측정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환자존중 15문항, 공감 9문항, 성실 8문항, 용기 6문항, 헌신 3문항, 전문직 태도 4문항, 전문직 윤리 3문항, 정체성 3문항으로 총 51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인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3)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Han과 Chung[21]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문화적 역량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문화적 지식 9문항, 문화적 기술 6문항, 문화적 경험 4문항, 문화적 인식 4문항, 문화적 민감성 4문항으로 총 27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4) 핵심간호역량

핵심간호역량은 Joo와 Sohng[1]이 졸업을 앞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핵심간호역량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간호전문직관 4문항, 비판적사고를 통한 통합적 간호 6문항, 의사소통 능력 4문항, 간호리더십 5문항, 스트레스관리 2문항, 생명존중 3문항, 간호연구 4문항, 핵심간호술 2문항으로 총 30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핵심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ABN01-2021**-HR-012)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시행 전에 사전 연구의 목적과 진행 절차, 익명성 보장 및 비밀 보장, 연구에 자율적 참여 및 도중에라도 중단할 수 있다는 윤리적 측면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는 직접 기입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였다. 설문지 작성 중 대상자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과, 참여 중단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

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암호화한 후 보관하고 연구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료의 보관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 후(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답례 품으로 사후조사 후 필기도구 세트를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 핵심간호역량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돌

봄인성, 문화적 역량, 핵심간호역량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 (3)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 핵심간호역량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파악하였다.
- (4)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나이는 22세 이하 49.1%(79명), 23세 이상이 50.9%(82명)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Ability, Caring Character, Cultural Competence and Nursing Core Competency (N= 16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ommunication Ability		Caring Character		Cultural Competence		Nursing Core Competency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Age	Under 22	79 (49.1)	3.87±0.38	1.55	4.35±0.40	0.79	4.04±0.57	1.93	4.37±0.46	0.97
	Over 23	82 (50.9)	3.76±0.47	(.123)	4.30±0.50	(.432)	3.86±0.61	(.055)	4.29±0.56	(.334)
Gender	Female	127 (78.9)	3.85±0.39	1.38	4.39±0.41	3.53	3.97±0.57	1.09	4.40±0.45	3.33
	Male	34 (21.1)	3.71±0.56	(.176)	4.09±0.54	(.001)	3.85±0.67	(.279)	4.03±0.62	(.002)
Religion	Yes	81 (50.3)	3.84±0.40	0.78	4.31±0.44	-0.33	3.97±0.57	0.52	4.29±0.48	-0.80
	No	80 (49.7)	3.79±0.46	(.440)	4.44±0.47	(.739)	3.92±0.62	(.599)	4.36±0.54	(.427)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a	127 (78.9)	3.85±0.40	2.23	4.40±0.40	9.94	4.02±0.54	4.72	4.40±0.45	7.46
	Common ^b	25 (15.6)	3.66±0.51	(.111)	4.03±0.57	(<.001)	3.64±0.73	(.010)	4.02±0.66	(.001)
	Dissatisfaction ^c	9 (5.6)	3.73±0.62		4.04±0.46	a>b	3.78±0.68	a>b	4.07±0.47	a>b
Human relationship	Good	130 (80.7)	3.88±0.42	3.69	4.39±0.43	3.52	4.02±0.58	3.34	4.38±0.48	2.98
	Not good	31 (19.3)	3.57±0.42	(<.001)	4.08±0.48	(.001)	3.64±0.58	(.001)	4.08±0.59	(.003)
Campuslife adjustment	Satisfaction ^a	126 (78.3)	3.87±0.40	6.68	4.39±0.42	7.66	3.99±0.58	2.58	4.37±0.48	4.86
	Common ^b	29 (18.0)	3.68±0.45	(.002)	4.13±0.44	(.001)	3.84±0.62	(.078)	4.24±0.55	(.009)
	Dissatisfaction ^c	6 (3.7)	3.33±0.57	a>c	3.86±0.69	a>b, c	3.50±0.68		3.76±0.67	a>c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	113 (70.2)	3.88±0.43	4.61	4.44±0.42	13.28	4.01±0.54	8.39	4.42±0.46	8.30
	Common ^b	39 (24.2)	3.64±0.38	(.011)	4.09±0.46	(<.001)	3.63±0.63	(<.001)	4.11±0.55	(<.001)
	Dissatisfaction ^c	9 (5.6)	3.84±0.51	a>b	3.96±0.37	a>b, c	3.87±0.70	a>b	3.97±0.52	a>b, c

평균 25.49±6.83세였다. 성별은 여자가 78.9%(127명)이었고, 종교가 있는 사람이 50.3%(81명)이었으며, 간호학 전공에 대해 78.9%(127명)가 만족하였다. 인간관계가 좋다고 한 사람이 80.7%(130명)이었고,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78.3%(126명)가 만족하였으며, 임상실습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가 70.2%(113명)로 조사되었다.

의사소통 능력은 인간관계 정도($t=3.69, p<.001$), 대학생활적응 정도($F=6.68, p=.002$), 임상실습 만족도($F=4.61, p=.01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지 못한 사람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높았고,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만족하는 경우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보다, 그리고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인성은 성별($t=3.53, p=.001$), 전공만족도($F=9.94, p<.001$), 인간관계 정도($t=3.52, p=.001$), 대학생활적응 정도($F=7.66, p=.001$), 임상실습 만족도($F=13.2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돌봄인성이 높았고, 전공에 만족하는 사람이 보통보다, 인간관계 정도가 좋은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보다,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만족하지 않는 경우보다, 그리고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사람이 보통이나 만족하지 않는 사람보다 돌봄인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역량은 전공만족도($F=4.72, p=.010$), 인간관계 정도($t=3.34, p=.001$), 임상실습 만족도($F=8.3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에 만족하는 사람이 보통인 사람보다 높았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보다, 그리고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사람이 보통인 사람보다 문화적 역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간호역량은 성별($t=3.33, p=.002$), 전공만족도($F=7.46, p=.001$), 인간관계 정도($t=2.98, p=.003$), 대학생활적응 정도($F=4.86, p=.009$), 임상실습 만족도($F=8.30,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핵심간호역량 정도가 높았고, 전공에 만족하는 사람이 보통인 경우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보다 높

았으며,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이 만족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리고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사람이 보통이거나 만족하지 않는 사람보다 핵심간호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 간호핵심역량 정도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5점 만점)은 평균 3.82±0.43점이었다. 돌봄인성의 전체평균(5점 만점)은 4.33±0.46점이었다고, 문화적 역량(5점 만점)은 3.95±0.59점이었다. 핵심간호역량(5점 만점)의 전체평균은 4.32±0.51점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간호전문직관이 4.55±0.5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 능력 4.46±0.55점, 비판적 사고를 통한 통합간호 4.37±0.58점, 생명존중 4.30±0.65점, 간호리더십 4.27±0.58점, 핵심간호술 4.25±0.72점, 스트레스 관리 4.21±0.70점, 간호연구 4.06±0.73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 핵심간호역량 정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 핵심간호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은 돌봄인성($r=.60, p<.001$), 문화적 역량($r=.45, p<.001$), 핵심간호역량($r=.5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돌봄인성은 문화적 역량($r=.64, p<.001$), 핵심간호역량($r=.84,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문화적 역량은 핵심간호역량($r=.6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성별, 전공만족도, 인간관계, 대학생활적응, 임상실습 만족도,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

Table 2. Levels of Communication Ability, Caring Character, Cultural Competence and Nursing Core Competency (N= 161)

Variables	Possible range	Min	Max	Mean	SD
Communication ability	1~5	2.60	5.00	3.82	0.43
Caring character	1~5	3.08	5.00	4.33	0.46
Cultural competence	1~5	2.30	5.00	3.95	0.59
Nursing core competency	1~5	2.87	5.00	4.32	0.51
Nursing professionalism	1~5	3.00	5.00	4.55	0.52
Integrated nursing through critical thinking	1~5	3.00	5.00	4.37	0.58
Communication skills	1~5	3.00	5.00	4.46	0.55
Nursing leadership	1~5	2.80	5.00	4.27	0.58
Stress management	1~5	2.00	5.00	4.21	0.70
Respect of life	1~5	2.33	5.00	4.30	0.65
Nursing research	1~5	1.00	5.00	4.06	0.73
Core nursing skills	1~5	3.00	5.00	4.25	0.72

적 역량을 변수로 포함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은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성 분포와 등분산성을 검정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가 2.20으로 2에 가까워 독립적이다.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1.16~6.61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으며, 잔차 분석 결과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이 핵심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단계 위계에는 일반적 특성을, 2단계 위계에는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인 일반적 특성만 포함된 1단계 위계에서 성별(남자), 임상실습(만족)이 핵심간호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핵심간호역량이 낮았으며($\beta =$

$-.27, \sim .001$), 임상실습에 불만족하는 경우에 비해 만족하는 경우($\beta = .33, p = .048$) 핵심간호역량이 높았다. 이들 통제변수가 핵심간호역량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16.6%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두 번째 위계를 투입한 모형2에서 모형1에 비해 설명력이 56.7%($p < .001$)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총 설명력은 73.3%였고,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은 핵심간호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이 높을수록 핵심간호역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인성($\beta = .62, p < .001$)이 가장 높은 영향을 주었고, 다음으로 문화적 역량($\beta = .17, p = .003$), 의사소통 능력($\beta = .14, p = .009$) 순으로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주었다(Table 4).

Table 3. Correlations among Communication Ability, Caring Character, Cultural Competence and Nursing Core Competency

Variables	Communication ability Caring character Cultural competence Nursing core competency			
	$r(p)$			
Communication ability	1			
Caring character	.60 ($< .001$)	1		
Cultural competence	.45 ($< .001$)	.64 ($< .001$)	1	
Nursing core competency	.59 ($< .001$)	.84 ($< .001$)	.63 ($< .001$)	1

Table 4. Factors Affecting on Nursing Core Competency

	Model 1				Model 2				VIF
	B	β	t	p	B	β	t	p	
(constant)	3.84		16.20	<.001	0.03		0.12	.902	
Gender(Male)*	-0.33	-.27	-3.56	<.001	-0.13	-.10	-2.33	.021	1.16
Satisfaction of major (Common) [†]	-0.08	-.06	-0.41	.680	-0.04	-.03	-0.37	.711	3.70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	0.06	.05	0.35	.727	0.01	.01	0.08	.934	4.31
Campuslife adjustment (Common) [‡]	0.33	.25	1.43	.154	0.11	.08	0.82	.415	5.88
Campuslife adjustment (Satisfaction) [‡]	0.23	.19	1.03	.305	-0.03	-.02	-0.20	.846	6.6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Common) [§]	0.10	.08	0.55	.583	0.11	.10	1.10	.275	4.68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Satisfaction) [§]	0.36	.33	2.00	.048	0.11	.10	1.04	.301	5.43
Communication ability					0.17	.14	2.66	.009	1.70
Caring character					0.70	.62	9.54	<.001	2.55
Cultural competence					0.14	.17	3.05	.003	1.80
R ² (ΔR^2 , p)			.166				.733 (.567, <.001)		
F(p)			5.55(<.001)				44.82(<.001)		
Durbin Watson							2.20		

ref : *gender(Female), [†] Satisfaction of major(Dissatisfaction), [‡] Campuslife adjustment(Dissatisfaction),

[§]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Dissatisfaction)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고, 이들 변수가 핵심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돌봄인성은 핵심간호역량에 첫 번째로 높은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 돌봄인성은 5점 만점 중 평균 4.33점이었으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와 Kim[22]의 연구에서 4.06점, Chun과 Hwang[23]의 연구에서 4.17점보다 높은 점수였다. Chun과 Hwang[23]의 연구에서 3학년보다 4학년이 돌봄인성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가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 선행연구보다 돌봄인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이 간호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사회봉사활동, 종교와 원불교, 생명윤리)와 비교과(덕 캠프)를 통하여 바람직한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해석되며, 인성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돌봄인성에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23]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돌봄인성이 낮았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인간존중 정도가 낮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문제중심 대처, 여학생의 정서중심 대처를 사용하는 경향의 차이로 인해 남학생은 친절함, 이타적, 감정적 표현 등이 비교적 낮기 때문[24]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돌봄은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며, 생명을 키우고 삶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한다[14]. 따라서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양성을 위해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올바른 돌봄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한 핵심간호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핵심간호역량에 두 번째로 높은 영향을 주는 요소인 문화적 역량은 5점 만점 중 평균 3.95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1,2,3,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과 Yoo[15]의 연구에서 2.91점, 4학년 2.78점보다 높았으며, 1,2,3,4학년 대상으로 한 Han[25]의 연구에서 평균 3.27점, 4학년 3.34점, Kim[26]의 연구 3.44점보다 높았다. 문화적 역량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발휘되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다[23].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의 증가와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대한민국에서 받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의 증가를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교과, 비교과를 통한 문화적 역량 및 다문화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대학 교육과정 중 교과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 영어회화 능력과 글로벌 역량 강화 활동 등을 강조함으로써 다문화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그룹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그룹이 문화적 역량이 높다는 선행연구[27]의 결과를 고려할 때 글로벌 시대에 따른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문화적 역량강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서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는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치료적 의사소통은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역량이다[12].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 중 평균 3.82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26]의 연구 3.59점, Park & Jung[28]의 연구 3.31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간호사는 대상자나 보호자 및 타 보건의료인들과 상호작용하는 인간관계의 기반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시 아직 익숙하지 못한 병원환경과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들과 만나 상호작용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29]. 본 대상자들의 경우 간호교육과정 중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팀 활동, 리더십 훈련 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의사소통 기술은 선천적으로나 생활에서 자연히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이며, 또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됨을 보고한 선행연구[30]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핵심간호역량은 5점 만점 중 평균 4.32점이었고,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 의사소통 능력 순으로 핵심간호역량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역량을 56.7% 설명하였다. 핵심간호역량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교육 내용 외에도 다양한 삶의 요소들을 교육내용으로 포함함으로써 다학문적, 통합 교과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3]는 선행연구의 의견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 결과는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 의사소통 능력 등을 함양하는 것이 핵심간호역량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대상자와 상호관계 형성을 기초로 의사소통을 통해 돌봄이 이루어지고, 인간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 이성정도가 높을수록,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공감능력이 높을 것이며, 이는 간호사의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로 이어져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즉 핵심간호역량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14]. 간호사의 핵심역량은 간호사로서 분야에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간호능력을 의미[3]하며,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통한 핵심간호역량의 공통된 요소는 의사소통 능력, 간호수행능력, 정보활용 및 연구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한 돌봄능력과,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는 글로벌 역량까지 요구하고 있어, 교육과정에서 인성과 태도, 대인관계술 관련 인문사회 교과목의 개설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 졸업을 앞둔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의 핵심간호역량에 돌봄인성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문화적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이었으며,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 간호핵심역량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이나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 등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이들은 핵심간호역량을 설명하는데 매우 영향력이 높은 변수됨을 확인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핵심간호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시기에 다양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 돌봄인성, 문화적 역량 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과 공동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조사연구로는 다양한 간호교육과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전·사후 실험연구로 교육과정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Joo GE, Sohng KY. Development of nursing competence scale for graduati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4;28(3): 590-604. <https://doi.org/10.5932/JKPHN.2014.28.3.590>
2. Meretoja R, Isoaho H, Leino-Kilpi H. Nurse competence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test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4;47(2):124-133.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4.03071.x>
3. Kim MW. Development of objectives in nursing clinical education based on the nursing core competenc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6;36(2):389-402. <https://doi.org/10.4040/jkan.2006.36.2.389>
4. Ha NS, Choi J. An analysis of nursing competency affecting on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0;16(3):286-294. <https://doi.org/10.11111/jkana.2010.16.3.286>
5.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es' core competencies and nursing education learning outcomes [Internet].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cited 2022 July 12]. Available from <http://old.kabone.or.kr/HyAdmin/upload/goodFile/120121127132143.pdf>.
6.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The essentials of baccalaureate education for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2015. p. 6-9.
7. Seomun GA, Bang KS, Kim HS, Yoo CS, Kim WK, Park JK. The development of nurses' core competencies and the analysis of validity and importance-performa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1;27(1):16-28. <https://doi.org/10.5977/jkasne.2021.27.1.16>
8. Utley-Smith Q. 5 competencies needed by new baccalaureate graduate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004;25(4):166-170.
9. Berkow S, Virkstis K, Stewart J, Conway L. Assessing new graduate nurse performance.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8;38(11):468-474. <https://doi.org/10.1097/01.NNA.0000339477.50219.06>
10. Mrayyan MT, Al-Faouri I. Predictors of career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of Jordanian nurse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2008;16(3):246-256. <https://doi.org/10.1111/j.1365-2834.2007.00797.x>
11. Bang KS. The focus group interview for developing

- the core competencies of nurses.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9.
12. Lee SH, Chung SE. Influencing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n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2): 340-349.
 13. Rochester S, Kilstoff K, Scott G. Learning from success: Improving undergraduate education through understanding the capabilities of successful nurse graduates. *Nurse Education Today*. 2005;25(3): 181-188. <https://doi.org/10.1016/j.nedt.2004.12.002>
 14. Park JY, Woo CH.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2;28(1):48-56.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48>
 15. Park MJ, Yoo HN. Influence of cultural compet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9;25(1): 38-47.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38>
 16. Chung CHI, Han SY, Seo SH. Effects of a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al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7;23(4):406-415. <https://doi.org/10.1111/jkana.2017.23.4.406>
 17. Hsu LL, Hsieh SI. Testing of a measurement model for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self-evaluation of core competenci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9;65(11):2454-2463.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9.05124.x>
 18.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3;47(6):380-408.
 19. Lee HS, Kim JK.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typ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0;16(4):488-496. <https://doi.org/10.1111/jkana.2010.16.4.488>
 20. Kim M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assessing caring-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dissertation]. Seoul: Konkuk University; 2018. p. 1-180.
 21. Han SY, Chung CHI.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5;45(5):684-693. <https://doi.org/10.4040/jkan.2015.45.5.684>
 22. Cho MH, Kim WG. The effect of caring-character,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21(21):329-339.
 23. Chun YE, Hwang HY.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aring character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20;10(1):43-54.
 24. Jung CH.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using SPSS program.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y*. 2017;11(6): 496-505. <https://doi.org/10.17661/jkiiect.2017.10.6.496>
 25. Han SY.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cultural competenc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 ability, and empathy abilit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20(1):905-922.
 26. Kim JY.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on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0;20(5):367-374. <https://doi.org/10.5392/JKCA.2020.20.05.367>

27. Kwon S, Son HK, Han A, Kim YJ, Choi G. The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7; 19(2):1069-1081.
 28. Park DY, Jeong KH. The influence of self 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1):337-346.
<https://doi.org/10.5392/JKCA.2014.14.11.337>
 29. Park SJ, Park BJ. Relationship of clinical practice stress to clinical competence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3;21(4): 312-322.
 30. Yoo MJ.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nurse's communication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EQ),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abil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6), 280-290. <https://doi.org/10.5762/KAIS.2018.19.6.280>
-